IT인들을 위한 맞춤전도집회 [하이터치]

인터뷰 및 간증 / 2005

*** 직원 40여명 하이터치 접속**

/ 김숙희 사장

이번 하이터치에는 행정정보화 분야의 거두로 알려져 있는 김숙희 사장(권사?서빙고 은혜 10순)이 직원 40여 명을 하이터치에 초대해 눈길을 끌었다.
30여 년을 줄곧 행정정보화 분야에 투신해 거둔 노하우를 밑거름 삼아 그가 세운 솔리데오시스템즈는 민원행정시스템 표준소프트웨어(1999), 건교부 건축행정정보시스템(2000), 강남구 종합정보화사업(2003), 수원시 U-해피프로젝트(현재) 등 이 분야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며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중견 IT 회사다.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우려하며 조심스럽게 인터뷰에 응한 김숙희 권사는 솔리데오시스템즈를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회사"라고 소개했다. 김 권사의 부연설명에 의하면 보통은 직장에서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화에 급속히 편승해 들어가는 것과 달리 이 회사에서는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 직장문화를 선도해 나간다는 것.
한홍, 여성민 목사 등 온누리교회의 많은 교역자들도 수시로 이 회사를 방문해 예배를 드려왔다. 이처럼 평소 직원들의 구원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 온 김 권사가 이번 IT집회를 그냥 넘어 갈리는 만무했다. 일일이 초대장을 돌려 70여 명의 직원 가운데 과반수를 초대했고 천주교를 믿는 한 직원을 인솔책임자로 세워 집회 사흘간 집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최대한 마련해 줬다.
집회 둘째 날 미리 나와 직원들을 맞이한 뒤 이홍렬 토크쇼에 패널로 참여한 김 권사는 "신입사원에게는 뽀뽀를 해 준다"며 직원 사랑을 간접표현하기도 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찾은 솔리데오 식구들의 영혼을 은밀히 어루만지셨다. 하이터치에서 김대광 김남권 이성진 이종일 김은진 등 적지 않은 직원들이 '결신'란에 체크했고, 결신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다수가 사후 양육프로그램에 초대받아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다고 고백하는 등 전반적으로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떨치고 구도의 관심을 증폭시키는 데 좋은 기회였다는 평가다.
결신한 김대광씨는 초대 받은 것이 무척 기뻤다며 "바쁘겠지만 주일 성수 만큼은 잘 지켜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노봉훈씨는 "동종 업계 사람과 편히 만나는 것도 좋았고, 특히 종교에 대한 뚜렷한 신념이 없었는데 하용조 목사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크게 다가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노씨는 기독고등학교를 다닐 때 종교적 인권을 주장하며 종교수업에 항의하다 징계조치를 당하기도 한 과거를 털어 놓으며 "그 때문에 기독교에서 더 멀어지고, 어머니가 믿는 불교에 가까워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씨는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종교적 관념도 그럴 것"이라면서도,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과 같은 따뜻한 메시지가 있고, 그 자리에

다시 초대해 준다면 꼭 참석해서 경청하고 싶다. 교회 출석 여부를 떠나 내 삶의 지표를 잡을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손을 내밀었다.
등은 보였지만 마음에 작은 불 하나를 담고 돌아간 이들도 있었다. 민화식씨는 "교회의 목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온누리교회의 정신이 매우 특별하며 준비하신 분들의 열의와 사랑이 무척 과분하게 느껴졌다"고 한 뒤 "그런 공동체 속에 있는 분들은 아마 행복할 거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영접하기에 아직도 많이 모자란 것 같다. 하 목사님 말씀대로 이성이나 의지로써가 아니라 마음에서 신앙이 우러나야 하는데 아직은 신앙보다 생활이 제게는 더 큰 고민이고 화두이다...."며 말끝을 흐렸지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은 해 보겠다"고 고백했다.
/ 차명권 기자salt@onnuri.or.kr

*** 강력한 터닝포인트를 찾습니다**

/MITMAS 김학원 대표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겁니다."
바쁜 회사 일정 때문에 둘째날 집회에만 참석한 컴퓨터 유지 보수 판매 회사 MITMAS 김학원 대표의 말이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랜드 같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눈물로 기도했었다는 김 대표. 그는 쟁쟁한 회사와의 경쟁에서 한국 IBM 협력 업체로 선정되고 태평양, NHN, 노키아 등과 거래를 하게 되면서 자칭 '잡사'가 되었다고 한다.
그는 스스로에 대해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그 이유로 첫째, 가정 분위기 때문이다. 얼마전 돌아가신 할머니는 100세 때까지 새벽기도를 다니셨고 부모님도 70세 되던 해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먼저 교회 다닌 그에게 '착실하게 다니라'는 충고를 한다. 둘째로 전방위로 복음에 둘러쌓인 회사 사무실이다. 옆 건물은 서소문교회이고 윗층에는 순장인 건물주가 거주하며 지하층에서는 교회가 있다.
또한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계약한 사건 하나하나가 본인의 능력을 떠난 계약임을 알고 있기에 언젠가 하게 될 간증을 위해 기록 중이라고 한다.
"교회가면 찬양에 눈물을 흘리는데 막상 돌아서면 생활이 똑같아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네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한 강력한 터닝포인트를 찾는 김학원 대표는 그 간절한 기대를 담아 스쿨에 등록했다. 셋째날 집회가 시작되기 전 집회 참석을 묻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을 때 그의 컬러링에는 찬양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사랑 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 한다 내 딸아/ 네게 축복 더 하노라."
/ 김익겸 기자kik@onnuri.or.kr

*** 저를 위해 대신 싸우고 계신 주님**

/요청자 문권기

하이터치 집회가 모두 끝나고 자정을 넘긴 시각, 기자에게 한 통의 편지가 날아들었다. 마지막 날이 돼서야 교회를 찾은 처남, 그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글자마다 묻어 있다.

오늘 처남은 영접은 하지 않았지만, 이 번 하이터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싸우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출14:14)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내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전도를 합니다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거대한 에너지로 접근하는 모습이 너무나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가슴 한 구석을 찡하게 합니다. 제 처남도 이슬비에 옷 젖는 거 모르듯이 복음을 자주 접하다 보면 어느새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거의 두 달 동안 처남을 위해 집중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특별한 변화가 없지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가, 많은 진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차명권 기자salt@onnuri.or.kr

*** 불참했지만 꼭 교회 갈게요**

/요청자 이정자 집사

집회 전날 기자의 전화를 받은 이정자 집사의 목소리는 벌써부터 울먹이고 있었다. 아들의 영혼을 향한 애탄 모정이 실린 듯했다. 온누리교회 실버성가대 조장이자 용산공동체 소망2순 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정자 집사는 “집안 전체가 다 하나님을 믿는데 아들만 멀어져 있다”고 털어놨다.
보광동에 거주하는 이 집사는 얼마 전 아파트를 처분했다.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마저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된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이 집사는 대신 하이터치에 나와 달라고 부탁했다.
하이터치 첫 날, 이 집사는 아들의 회사 정문에 일찌감치 나와 있었다. 아들의 손을 잡고 교회로 가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7시, 8시, 9시가 되어도 이 집사와 아들은 교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튿날 이 집사는 전화를 통해 “아들이 갑자기 출장이 생겼다며 하이터치에 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라고 끝을 흐렸다.
그러나 이 집사는 곧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출장을 다녀와서 꼭 교회에 나가겠다고 아들이 다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예측치 못할 방법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참 사랑합니다.”
/차명권 기자salt@onnuri.or.kr

*** 영적인 생일을 맞고 싶습니다**

/SK 텔레콤 논현직영점 이창우 씨

전도 집회 마지막 날인 27일(수) 저녁 10시, 모든 순서가 끝나고 썰물이 빠지듯 참석자들이 자리를 떠나는 사이 중앙 한 테이블에서는 촛불이 켜진 케이크를 앞에 두고 축하 파티가 열렸다. SK 텔레콤 논현동 지점장으로부터 집회에 초대받은 이창우 씨의 생일 파티였다.
"교회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마음들이 변해서 제 자신도 놀랐어요."
중고등학교 때 3~4년 교회 다닌 것 말고는 담을 쌓았던 그는 이번 집회를 통해 신앙과 믿음 등에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 스스로도 놀랐다. 부정적인 느낌에 대해서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소개한 이창우 씨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강요하지 않은 아내에게 공을 돌렸다.
"와이프가 일부러 집에 갖다 놓은 것 같은데요. 전도 집회에 오기 전 <갈대상자>, <하늘에 속한 사람> 등을 읽으면서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누그러졌어요."
또한 그는 교회에 다시 발을 내딛으면서 "교인들이 (초대자를) 진실 되게 맞는 것 같았다. 의무적이 아닌 진심으로 봉사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며 높은 점수를 줬다. 게다가 집회 내내 딱딱하고 지루하지 않고 쉽게 전해진 말씀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3일 간 진행된 전도 집회를 모두 참석한 그는 개인 시간을 할애한 것도 있지만 회사가 문을 닫고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한 데 놀라움을 표시했다.
"다른 직영점은 모두 문을 열었는데 저희는 6시에 문 닫고 참석했거든요. 본사에서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신실하신 것 같아요. 그런 신뢰성이 있어 참석하게 된 거죠."
그는 사장의 결단에 대해 '신앙의 용기', '말로만 믿는 게 아닌 실천하는 굉장한 용기'라고 추켜세웠다.
그는 집회 마지막 날 육신의 생일을 맞은 것처럼 영적인 생일을 기대하며 하이터치 스쿨에 등록했다.
"강사로 초대된 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모셨다는 간증을 들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든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익겸 기자kik@onnuri.or.kr

*** 오빠, 가족 구원의 통로가 되세요**

/요청자 최성희

요청자 최성희 자매(과천의왕?의료선교팀)는 대학교 때부터 가장 절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는 김경미 자매의 오빠를 하이터치에 초청했다. 4녀1남의 막내인 김경미 자매는 "오빠가 믿게 되면 가족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오래전부터 눈물로 기도했다"고 밝혔다.
초대에 응한 김재환씨의 처음 반응은 사흘간 다 참석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나마 감사한 마음으로 요청자 기도모임에 매번 나와 기도하던 최성희 김경미 두 친구는 어느 날 똑같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하나님께서 사흘을 친히 예비해 두셨다는 말씀이었다.
동일한 마음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뜻을 모은 두 친구는 사흘 다 참석해 달라고 다시 요청하기로 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김재환씨의 마음과 환경을 열어주셨다. 하이터치 첫날 친구의 오빠를 행사장으로 올려 보내고 최성희 자매는 두란노홀에서 열심히 편지 한 장을 적고 있었다. 축복의 편지였다. 맘에 안 드는지 고쳐 쓰기를 몇 번. 편지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에 꽂혔다.
김씨는 첫 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신했다. 둘째 날 기자의 전화를 받고서야 결신 사실을 안 최성희 자매는 하나님의 깊은 개입이 놀라워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집회가 모두 끝날 무렵 만난 김씨의 표정은 훨씬 평화로 가득해 보였다. “좋았죠.” 오랜 세월 묵은 먼지를 털고 나온 첫 마디였다. 이제 시작이어서 모든 게 조심스럽고 낯설다는 표현이었지만, 하이터치를 개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유달리 가벼웠다. 세례를 받고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아내의 기도가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차명권 기자salt@onnuri.or.kr

*** 이 사람을 믿고 왔습니다**

/김갑용 (대상자)

“이 양반이 나를 나쁜 곳으로 초청할 이유가 없죠. 이 사람을 믿고 왔습니다.”
10년 지기인 오형문 집사의 초청으로 하이터치에 참석한 김갑용 씨. 어릴 적 과자와 빵 먹는 재미에 교회에 다녔다는 김갑용 씨는 실로 오랜만에 다시 교회에 접했다며 옛 시절을 추억했다. 집회에 참석해 하용조 목사의 말씀을 들은 것이 좋았고 테이블 리더를 비롯해 젊은 사람들과 화기애애하게 이야기 한 것도 즐거웠다고 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우리는 하드웨어적인 것만 너무 발전했는데 그것보다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발전시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많이 업그레이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평소에 생각하던 내용이라 마음에 와 닿았고 많이 공감했습니다.”
김갑용 씨는 집회에 참석하면서 교회가 단순히 종교적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곳으로 인식이 변했다고 이야기한다.
“하 목사님께서 ‘개와 사람이 대화를 하고자 할 때 개는 자기 기준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어 사람이 개가 되어야만 대화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대화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춰 항상 내 곁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세상을 살아가며 적용하면서 좀 더 마음을 열고 상대를 이해하면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결신카드에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 적어냈다는 김갑용 씨는 오랜만에 만난 하나님과 더욱 깊이 알아가기 위해 셋째날도 요청자와 본당으로 올랐다.
/ 전성희

*** 이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주)솔리데오시스템즈 김대광

교회에 가끔 다녔지만 저는 일명 나이롱 신자였습니다. 1년 전 구원의 확신을 얻기는 했어도 직장 일이 바빠 주일예배조차 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이번 집회에 초대하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모르는 사람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오라고 쪽지를 나눠 주셨습니다. 초대를 받고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되지 않고 언제나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라도 항상 주님을 찾았지만 단순히 기도하는 것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공부 등으로 영적 양식을 얻고 성장하고 싶었지만 저 혼자 어딘가 찾아갈 수도 없어 기회가 오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하이터치'에 초대해주셔서 제게는 정말 좋은 기회였고 첫날 바로 결심하고 결신하게 되었습니다.
IT인들의 특성상 앞으로도 생활 리듬이 불규칙하고 주일에도 회사를 출근해야 할 일이 있을 정도로 바쁘겠지만 이제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열심히 지키고 싶습니다.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기인 제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 전성희 기자shee@onnuri.or.kr

*** 출처 - 온누리신문**